

2022년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광주지부

도서관명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책돌이도서관/신화숙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올로 코엘료/이성해 역/ 문학동네	베로니카가 7일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삶의 태도가 변화하였듯이 7일 동안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과는 별개로.....
2	책돌이도서관/신화숙	곰씨의 의자 /노인경/ 문학동네	즐겁기는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우려면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이제 솔직해질 용기를 내보자.
3	책돌이도서관/신화숙	키오스크/ 아테네 멀레세 글그림/ 김서정 역/ 미래아이	비좁은 키오스크에서만 살아온 올가. 한 발짝만 나서면 바깥이지만 언젠가는 두 눈으로 직접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것이 꿈이다. 어느 날 키오스크 안에 얹은 채로 쓰러져버린 올가는 한참을 허둥대다 얼떨결에 일어서고 산책을 나섰다. 강물에 빠지고 바다로 떠내려 간다. 어제와 다른 나는 내가 의도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찾아올 지도 모른다. 내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4	책문화공간 봄 / 김순정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 장명숙/ 김영사	어떻게 나이들어가면 좋을까? 어떤 어른으로 멋지게 남은 인생을 그려갈까? 하는 고민과 질문에 많은 답을 준 책입니다. "자기의 타고난 맥박대로, 따로 또 같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만들어가는 나만의 루틴과 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황수경 바다의 선물 / 앤 모로린드버그 지음 / 김보람 옮김	많은 사람들이 사십대에서 오십대로 넘어가는 이시기를 몹시 힘들어한다. 성장의 전조인 욕구불만, 초조, 근심, 절망, 갈망따위는 내가 보기에 사춘기의 징후와 비슷한데, 이를 쇠퇴기의 징후로 잘못 해석하려 든다.
2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조현아 당신의 차이를 즐겨라 / 박혜경 / 강	사람 앞에 붙은 미등록이란 말은 서늘하고, 이주란 말은 조금 고단하게 들렸다. 저 단어의 배열은 어쩐지 제 몸보다 큰 보따리를 이고 가는 어린이의 뒷모습을 연상시킨다.
3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은유/ 창비	참이라는 개념을 상상하지 않았다면 거짓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과 거짓은 대립이 아닌 공묘의 관계다.. 욕망이 욕망하는 것은 욕망의 충족이 아닌 욕망의 지배력이다.. 욕망의 재생산은 결핍의 재생산이다.. 실행이야말로 진정한 실재다.. 자기 역량의 능동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상상의 자유는 인간이 자기 삶의 가장 역동적인 주체가 되는 사건이라 해야할 것이다.
4	마상공원작은도서관/김은미 내 안의 새는 원하는 곳으로 날아간다 / 사라 룬드베리 글 그림 / 이유진 옮김 / 산하	나는 살그머니 집 앞 개울로 나간다. 진흙이 물 밑에서 빛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진흙이 제 모습을 벗어낸다. 저절로 그렇게 되고 있다. 갑자기 손바닥에 움직임이 전해진다. 작은 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날개가 돌아나려 한다.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손바닥을 폈다. 그러자 진흙 새가 날아오른다!
5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정희 그림 여행을 권함 / 김한민 / 민음사	그림이라고 하면 대개 종이에 남는 결과물을 떠올리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행동, 더 자세히 말해 그리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변화다.

2022년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개인회원/손수정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조병영 / 쌤앤파커스	이 책을 읽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은 제대로 읽고 쓰고 대화하고 있습니까?"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주 미미하고 소소할지라도 이 책을 읽지 않은 이들에게 나의 감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위의 질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그나라어린이도서관	공동선을 위한 독서 / C. 크리스토퍼 스미스 / 죠이북스	"읽고, 숙고하고, 대화하고, 배우고, 일하고, 함께 묶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와 지역, 그리고 세계의 성숙과 번영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된 삶이 우리가 창조된 즐겁고 의미가 풍성한 목적이다. 이것이 충만히 살아 있는 인간이다!"
3	개인회원/김경희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엄기호지음/나무연필	고통에 곁이 필요한 만큼 고통의 곁에도 곁이 필요하다. 곁이 없는 고통의 곁은 인간으로서 지속될 수 없다.
4	책마실도서관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황보름 / 클레이하우스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휴남동 서점이라는 공간을 안식처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 등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사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가득한 책입니다.
5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나는, 휴먼/ 주디스 휴먼, 크리스틴 조이너 ; 김채원, 문영민 옮김 / 사계절출판사	# 이제 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나를 내가 되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었다. - 주디스의 메모 中 (p.14) #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다. 접근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다. # 만약 당신이 내일 장애를 얻게 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변화가 비극은 아닐 거라고. (p.289)

2022년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장선덕	걷기의 말들/마녀체력/유유	살 길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어. 또 한 걸음. 언제나 똑같은 그 한 걸음을 다시 내딛고 또 내디뎠지
2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박순선	늑대 할머니/에드 영/길벗어린이	표지에 쓰인 것처럼 우리나라 옛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세 자매가 늑대를 물리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3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송은영	담을넘은아이/ 김정민/ 비룡소	"문이 막히면 담을 넘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찌 살 것입니까..." 당차고 용기있는 푸실이가 의지박약한 나에게 묻는 것 같아 되뇌게 한다. "어찌 살 것입니까..."
4	작은도서관 웃는책/조영아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냐.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되니까 총을 쏘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5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이지인	가능주의자/나희덕/문학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5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숨쉬듯 가볍게/저자 김도인/웨일북	변화를 꿈꾸지만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익숙한 것들에만 안주하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것에 좋은 나쁜든 생각없이 "예스맨"이 된다면 새로운 발견을 할수 있을 것이란 저자의 말에 공감하지만 무언가 현실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부담이든 아직까지 실천해보지 못한 책. 그래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언젠든 난 날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주는 책입니다.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어른의 성장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요즘 딱 좋은 책인것 같습니다.
2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나는 나의 주인/채인선 글/토토북	책을 읽는 동안, 스스로 질문과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게하는 책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더 나은 내가 되기위해 무엇을 배워가는지 등 자아탐색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는 책입니다.
3	해바라기도서관/박면우	아마도 너라면/글 코비야마다, 그림 가브리엘라버루시/상상의힘	무슨일을하던 자꾸 꼬이고 마음대로 되지않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4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책 한번 써봅시다/장강명(지은이),이내 (그림)/한겨레	이 책을 읽고 글쓰기를 배운다거나 글쓰기가 취미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취미와 달리 독특하게?봤던 시선을 거두게 되었어요. 책을 써야하나 싶은 고민을 던져준 책이기도 합니다.